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

641-01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마디미서로 64 (4층) ☎275-5646 unjjang@gmail.com

성명서

2011. 06. 01.

김미령·백명호는 택시노동자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조 인정, 불법매각 중단이 사태 종결

전면파업 150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진주 화성교통분회는 김미령과 백명호 등이 불법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길 촉구한다. 우리는 고용승계와 노조인정 없는 어떠한 불법매각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발을 단호히 배격, 분쇄할 것이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 보장이 이루어질때까지 결사항전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불법 지입 운운하는 진주지역 택시사업자에게 경고한다.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자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 역시 노조무력화와 민주노조 부정으로 여겨서 두 번 다시는 헛소리 못하도록 초토화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히는 바, 이번 사태의 해결은 완전한 고용승계, 노조인정과 단체협약 유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보장과 최저임금 지급 등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린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가스값이 폭등해도, 사고가 나도 모든 것을 운전자 부담으로 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화성교통 조합원의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김미령은 인수할 자격도 없고 파업을 빌미로 노조 깨기에 앞장서는 것 역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화성교통 전면파업의 해결방안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주 40시간 및 최저임금 보장 ▶고용승계 및 노동조합 인정 뿐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김미령의 (합)제일택시, (합)진일택시, 백명호의 (유)화성교통에 대해 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 어차피 남아도는 택시! 없애야 산다.